http://doi.org/10.32428/poetry.61..202408.233

불교가사 〈회심곡〉의 전승과 사설 변모 양상 연구*

최형우**

차 례

1. 서론
2. <인과문>의 구조와 <회심곡> 사설의 전승
3. <회심곡> 사설의 사설 변모 양상
4. <회심곡> 사설 향유의 사회문화적 의미
5. 결론
□ 참고문헌

<국문초록>

이 논문은 불교가사 〈회심곡〉이 향유되는 과정에서 사설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이것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회심곡〉은 불교가사 작품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향유되고, 크게 유행하였던 작품으로, 현재까지도 일부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회심곡〉에 대한 논의가 그간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회심곡〉 작품 계열 내에서의 사설 변화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이 논문에서는 〈회심곡〉 계열 사설들을 분석하여 그 변모의 양상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회심곡〉 사설 전승의 기준점을 18세기 기록된 〈인과문〉으로 두고, 이 사설과 19-20세기 기록된 〈회심곡〉 사설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회심곡〉 계열 사설은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 힘든 필사본이 많고,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설들은 대부분 20세기 초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18세기 사설 이후 일어났던 변화의 결과를 20세기 초에 기록된 사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회심곡〉 사설의 변모 양상이 주로 전대부터 활용되었던 불법 전파의 교시적 사설이 축소되고, 〈회심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묘사하는 사설이 확대되는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 이 연구는 한세예스24문화재단의 2022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이러한 사설의 변모 양상은 단순히 대중들의 기호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당시 불교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른 불교의 변화 노력이 반영된 것이었다. 당시의 불교는 외래 종교의 유입은 물론 각종 신종교의 출현과 관련하여 어느 때보다 대중성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였으며,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민족 종교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회심곡〉 사설의 변모 양상은 이러한 19-20세기 불교의 변화를 읽어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회심곡, 인과문, 불교가사, 사설 변이, 포교

1. 서론

불교가사 〈회심곡〉은 불교가사 작품들 가운데 가장 널리 유행한 작품 중 하나로, 불교가사 향유의 초창기부터 가장 최근까지 연행되어 오고 있다. 조선 후기부터 현재까지 불교를 둘러싼 시대, 사회적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전승, 향유될 수 있었다는 점은 변해가는 시대, 사회적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작품이 가진 가치와 역할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회심곡〉은 불교가사의 발생, 전개, 쇠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항상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회심곡〉은 불교가사 창작 및 향유의 가장 이른 시기부터 가장 마지막 시기까지 연행되었다. 물론, 불교가사의 발생에 대한 몇몇의 이견이 있기는 하나[1] 불교가사가 널리 향유되었던 시기는 주로 18세기 초부터 20세기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회심곡〉 사설은 18세기 초 『염불보권문』에 처음 수록된 것으로 보이며, 1965년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화청』에까지 수록되어 있고, 현

1) 불교가사의 발생은 〈서왕가〉의 작자를 나옹화상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서왕가〉의 작자를 나옹화상으로 보고, 불교가사의 발생을 고려후기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서왕가〉와 유사한 내용을 나옹화상이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사 사설로 본격적으로 향유된 것은 17-18세기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불교가사 향유는 18-20세기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 불교의 영산재 진행 과정에서도 더러 연행되고 있으니, 사실상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는 형태이다.

이렇듯 〈회심곡〉은 국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어느 정도 선행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회심곡〉에 대한 선행 논의는 초기 〈회심가〉와 〈회심곡〉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논의[2]에서부터 작품의 특징이나 주제의식에 대한 논의[3], 민요나 무가 〈회심곡〉 계열 작품과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는 논의[4], 음악적 측면에서의 논의[5]들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미 인접 갈래의 갈래 사설들과의 영향 관계까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회심곡〉에 대한 논의가 일정 수준 이상 진척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작 〈회심곡〉 사설의 이본 관계나 동일 작품 계열 내에서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해당 문제에 대해 접근하여 일련의 사설 비교 분석을 진행한 경우는 김동국의 논의[6]가 있다. 이 논의에서는 여러 불가

---

2) 〈회심가〉와 〈회심곡〉의 차이를 논의한 대표적인 논문은 아래와 같다.
김종진, 「불교가사 유통연구」(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0).
김동국, 「회심곡 발생고」, 『우리어문연구』 21(우리어문학회, 2003).

3) 이옥영, 「회심곡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김종진, 「〈회심곡〉 감상의 한 측면 : 탱화와 관련하여」, 『한국시가연구』 12(한국시가학회, 2002).
김동국, 「회심곡 변이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 16(우리문학회, 2003).
전재강, 「〈회심곡〉류 불교가사의 단락 전개·구성과 선악·생사관」, 『어문학』 115(한국어문학회, 2012).

4) 손인애, 「20세기 전반기 〈회심곡〉의 전승 양상」, 『한국민요학』 37(한국민요학회, 2013).
강진옥, 「제주도 무가 〈헤심곡〉 연구」, 『구비문학연구』 38(한국구비문학회, 2014).
강진옥, 「동해안 무가 〈신무염불〉의 〈회심곡〉 수용과 변용 연구」, 『비교민속학』 57(비교민속학회, 2015).

5) 성기련, 「화청 회심곡과 염불 회심곡」, 『한국음반학』 9(한국고음반학회, 1999).
박정경, 「회심곡과 서울굿 바리공주의 음악적 비교」, 『한국민요학』 32(한국민요학회, 2011).
김빛여울, 「불가조, 소릿조 〈회심곡〉 연구」(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조영림, 「회심곡 비교 연구 : 하룡남·이춘희 창을 중심으로」(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24).

〈회심곡〉 사설을 분석하여 '〈회심곡〉 단락의 선택적 구연', '특정 단락의 확장' 등의 키워드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무가, 잡가 〈회심곡〉까지 폭넓게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심곡〉 사설 연구와 관련된 가장 종합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는 사설 간의 비교를 통해 도출되는 여러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정작 불교가사 〈회심곡〉 사설의 변모 양상과 그 의미를 명확하게 도출해내지는 못하였다. 이후 〈회심곡〉의 이본 중 하나인 〈인과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7] 〈회심곡〉 사설 이본에 대한 비교 논의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회심곡〉의 여러 이본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시대적으로 변모 과정을 거친 결과가 어떻게 사설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회심곡〉 사설 변모의 동인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교가사 작품들 가운데 〈회심곡〉이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서 오랜 기간 동안 향유되었다면, 이 작품 사설의 변모 양상에는 당대의 향유층이 가졌던 의식이 가장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의미 도출이 이루어진다면, 〈회심곡〉 계열 사설이 오랜 기간 향유될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과문〉의 구조와 〈회심곡〉 사설의 전승

〈회심곡〉 사설의 전승과 변모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난점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불교가사 작품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회심곡〉 사설은 기록 연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명확한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사설 대부분이 20세기 초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

6) 김동국, 「회심곡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7) 최형우, 「불교가사 〈인과문〉의 사설 구성 방식과 연행문화적 의미」, 『어문학』 144(한국어문학회, 2019), 161~186면.

적 흐름을 전제로 한 '변모'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변모 양상'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사설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러한 기준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난점들에 대한 기준을 먼저 명확히 설정하여야 사설의 구조와 변모 양상을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회심곡〉 사설의 구조와 변모 양상 분석에 있어 가장 기준이 되는 사설은 〈인과문〉 사설이다.[8] 〈인과문〉 사설은 다른 〈회심곡〉 계열 사설들과는 다르게 18세기에 기록으로 정착되어[9]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해당 사설은 다소 파격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표제가 '~文'으로 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회심곡〉의 이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사설이 파격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불교가사 향유의 초창기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사설과 동시에 수록된 〈나옹화상서왕가〉와 〈회심가〉를 제외하면 해당 사설보다 먼저 창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침굉(1616-1684)의 세 작품밖에 없다.[10] 침굉의 세 작품은 물론, 〈나옹화상서왕가〉에까지 일부 사설의 파격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과문〉 사설의 파격 형태는 불교의 일반적인 산문 형식인 'sūtra"가 율격체인 가사 사설이 되어가는 과정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과문〉은 후대에 향유된 〈회심곡〉과 주제의식 및 사설의 전체적인

---

8) 그간 사설 〈인과문〉은 〈회심곡〉의 善本으로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중심 사설로서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현재 〈회심곡〉 관련 다른 이본들과 비교하여 볼 때, 적어도 100년 이상의 기록 연대가 차이난다는 점에서 〈회심곡〉 사설의 형성과 향유, 전승 과정을 풀어낼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침굉의 가사 작품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장 이른 시기 기록된 사설이라는 점에서 〈인과문〉 사설은 불교 사찰에서의 가사 창작 및 향유의 초기 과정을 해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9) 〈인과문〉은 18세기에 전국적으로 수차례 간행되었던 『염불보권문』에 〈나옹화상서왕가〉, 〈회심가〉와 함께 실려 있다. 특히 〈나옹화상서왕가〉와 〈인과문〉은 「염불작법차서」 내의 '발원문'에 삽입가요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10) 침굉현변은 고산 윤선도가 양자로 삼아 환속시키려고 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침굉현변의 가사 작품은 윤선도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창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침굉현변의 가사 작품은 〈귀산가〉, 〈태평곡〉, 〈청학동가〉가 남아 전한다.

구조를 통해 볼 때 동일한 계열 사설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 〈인과문〉과 〈회심곡〉은 모두 인간의 '생-로-병-사'의 苦와 인과적 결과로 제시되는 사후 세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덕을 쌓을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또한 사설의 전체적인 구조 역시 사설 단락의 가감이 있지만, 동일한 형태이다. 따라서 이 사설은 〈회심곡〉의 이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설이 사실상 불교가사 향유의 가장 초창기에 기록된 사설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설이 〈회심곡〉 사설 유행 및 전승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아울러 해당 사설의 제목이 '~文'인 것 역시 이러한 향유 초기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11]

〈인과문〉을 비롯한 〈회심곡〉 계열 사설은 '인과적 사설 구성'[12]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인과적 사설 구성 방식은 윤회전생 관념을 기반으로 한 '생-로-병-사'의 흐름에 따라 사설이 구조화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특히 〈회심곡〉 계열 사설이 주로 영산재, 49재와 같은 불사에서 연행되거나 민요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주로 장례의식요로 불렸다는 점만 고려해 보더라도 불교의 '윤회전생' 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설 구성 방식이 '인과'인 이유는 '생-로-병-사' 구조의 사설이 전개되기 때문이며, 대중 포교를 목적으로 한 '敎示(生)'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3]

이 가운데 〈인과문〉 사설은 '서사-본사-결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사'에서는 일반적인 불법을 설파하는 교시적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본사는 두

---

11) 단어의 의미만 놓고 보더라도 '~歌'는 주로 노래의 표제로 붙는 단어이고, '~文'은 일반적으로 산문의 표제에 붙는 단어이다. 불교에서 운문은 'gatha/geya'[偈頌]로, 산문은 'sūtra'로 개념화하는데 가사 사설은 'sūtra'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文'의 표제는 가사 갈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가사 사설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12) 최형우, 「불교가사의 연행과 사설 구성 방식 연구」(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6), 100면 참조.

13) 최형우, 앞의 논문, 101면.

단락으로 구분되어 각각 '생-로-병'의 사설과 '사'의 사설을 담고 있는 형태이며, 결사는 회귀된 '생', 즉 대중들을 향한 교시적 내용이 담겨 있는 형태이다. 이는 불교가사 사설이 주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의 기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과문〉 사설이 기록을 기반으로 유통된 이후 〈회심곡〉 계열 사설은 주로 구술을 기반으로 전승, 향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과문〉이 1704년 『염불보권문』에 수록된 이후 이 원전이 약 100년에 걸쳐 전국 사찰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아[14] 이 사설의 유통 및 향유에 '기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회심곡〉 계열 사설의 수록 원전이 대부분 20세기 초 출판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연대 미상의 두루마리 사설 역시 〈인과문〉 사설과 대비하여 볼 때 사설의 변이가 상당한 편폭으로 나타난다는 점 등을 통해 구술을 기반으로 한 전승이 이루어졌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20세기에 걸쳐 〈회심곡〉은 크게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러 표제로 기록되어 전하는 〈회심곡〉 계열 이본의 양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회심곡〉 원전 중 정확히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20세기에 들어 간행된 것들이다. 이외에 정확히 연대를 알 수 없는 두루마리 혹은 필사본 이본들이 다양하게 남아 전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18세기에 기록된 〈인과문〉 관련 이본들이 남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심곡〉의 창작(혹은 사설 형성) 연대를 더 이른 시기로 파악한 경우도 없지 않으나[15] 현재 남아 전하는 『염불보권문』에 수록된 〈인과문〉과 이외 활자본, 필

---

14) 『염불보권문』은 1704년 명연(?-?)에 의해 예천 용문사에서 처음 간행된 이후, 1741년 수도사, 1764년 동화사, 1765년 홍률사, 1765년 용문사, 1776년 해인사, 1787년 선운사에서 간행되었다.

이상 명연 저, 정우영·김종진 옮김, 『염불보권문』(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10면 참조.

15) 불교가사에 대한 초기 논의에서는 〈회심가〉와 〈회심곡〉을 동일한 계열의 작품으로 보고 〈회심곡〉의 작자를 청허휴정(1520-1604)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회심가〉와 〈회심곡〉이 다른 계열의 작품이라는 점이 밝혀지며, 〈회심곡〉은 주로 19

사본 이본의 정황으로 볼 때, 〈회심곡〉 사설은 18세기 이후에 주로 유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회심곡〉 사설은 다른 불교가사 작품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이본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기중에 의해 주요 이본이 정리되어 제시되었으며, 이외에도 상당수의 이본이 남아 전하고 있다.

<표> 임기중에 의해 정리된 <회심곡> 사설의 주요 이본[16]

연번	작품명	작자	연대	비고
1	인과문	-	18세기	염불보권문(1704(용문사), 1741(수도사), 1765(동화사), 1776(해인사), 1787(선운사))
2	별회심곡	-	19세기	역대1785, 석문의범(1931)
3	선심가(善心歌)	-	1887	필사본 불교가사, 역대1853
4	사체가(四諦歌)	-	1931	필사본 서방금곡(최취허)
5	속회심곡	-	1934	가집(1934), 아악부가집(1934), 악부(1930-1934), 역대700-701
6	특별회심곡	-	19세기	필사본 악부(이용기), 역대987
7	환참곡(喚懺曲)	-	19세기	필사본 환참곡, 역대2423
8	감사별곡(憾死別曲)	-	1931	필사본 서방금곡(최취허)
9	무량가(无量歌)	-	19세기	역대1743
10	별회심곡(別回心曲)	-	1970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화청

해당 현황을 통하여서도 〈인과문〉 사설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사설들이 20세기에 기록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필사본이나 두루마리 이본의 경우 사실상 정확하게 필사연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8세기 이미 〈인과문〉 사설이 판각되어 널리 유통되었다는 점, 일부 19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되는 필사본이 존재한다는 점, 서지적인 형태와 기록 문화의 일반적 특징 등에 따라 필사본 사설의 상당수가 19-20세기에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설들의 정확한 기록 연대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이본을 기준으로 18세기의 사설과 이후의 사설을 비교 분석하는

세기에 유행한 가사로 설명되었다.

16) 임기중, 『불교가사 원전연구』(동국대학교출판부, 2000).

것이 가능한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17]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8세기 기록된 〈인과문〉 사설을 기본으로 이후 기록된 〈회심곡〉 계열 사설을 비교, 분석하여 통시적인 변화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설은 〈서왕가〉와 더불어 기록상으로 불교가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최근까지 끊임없이 향유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유행하여 온 형태이다.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불교를 둘러싼 사회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찰 구성원들의 의식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황은 〈회심곡〉 사설의 전개와 변이에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3. 〈회심곡〉 사설의 사설 변모 양상

앞서 언급하였듯이 18세기 기록된 〈인과문〉과 19-20세기 기록된 〈회심곡〉 계열 사설들을 비교하여 보면, 사설 차이의 폭이 상당히 크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불교가사의 사설이 상당히 느슨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인과문〉의 사설은 크게 '생-로-병-사'에 대한 묘사가 중심이 된 본사와 일반적인 교시 사설인 서사, 대중들을 향한 수행과 염불을 권유하는 교시 사설인 결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회심곡〉 계열 사설의 다양한 변모 양상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

17) 18세기 기록된 〈인과문〉 이후 연대가 확인된 사설은 대부분 20세기 이후 활자본으로 간행된 원전에 수록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외의 많은 필사본 이본은 연대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즉, 19세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사가 향유되었는지에 대해서 20세기 이후 기록된 이본을 기준으로 해명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3.1. 교시적 사설 단락 축소를 통한 대중성 강화

〈인과문〉 사설이 형성, 기록된 이후 19~20세기를 거치며 〈회심곡〉 계열 사설은 사찰 공간에서 일상 공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연행, 향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과문〉을 비롯한 불교가사 사설이 사찰 공간 내에서 수행이나 불사의 핵심 내용으로서 주로 향유되었다면, 사설 변이의 폭이 커야 할 이유가 없다. 〈회심곡〉 사설이 연행된 현장을 시대적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전승된 연행 현장만 놓고 보더라도 영산재나 천도재와 같은 재의식 현장에서부터 다양한 민간 현장[18]에서까지 연행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회심곡〉 사설 변이의 단서를 추론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듯 다양한 현장에서 〈회심곡〉 계열 사설이 연행되었다면, 사설 변이의 중심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찰 구성원인 '대중'이 있을 것이다. 사찰 구성원은 승려 집단에서부터 각 사찰을 구심점으로 한 '佛者', 사찰 인근 지역에 넓게 분포된 '대중'들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은 집단인 '대중'은 불교와 사찰에 대한 관심과 신앙은 어느정도 있으나,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행과는 거리가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불교신앙은 사실상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효'와 깊이 관련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작법'의 절차 가운데 연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인과문〉의 사설 변이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사설 가운데 '불법에 대한 교시' 내용이 축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인과문〉은 사설의 전반이 "교시적 어조"가 주를 이루는데, 그 가운데도 "불법에 대한 교시"는 주로 사설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다. 사설의 중반부가 '생-로-병-사'로

18) 현재 남아 전하는 〈회심곡〉 사설은 불교가사로서 기록되거나 연행되는 형태 뿐만 아니라 민요의 형태로 연행되는 경우, 무가의 형태로 연행되는 경우, 상여소리로 일부 사설이 전승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불교가사 〈회심곡〉이 유행하는 과정에서 인접 갈래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인과적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앞뒤로 교시적 사설 내용을 덧붙여 불교 교리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은 '불교가사' 사설 구성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 석가셰존님은 삼계도ᄉᆞ시고 ᄉᆞ싱에 부모시라
사ᄅᆞᆷ이라 ᄒᆞᄂᆞᆫ거ᄉᆞᆫ 셤개ᄐᆡᆷ 밍귀우목 갓ᄒᆞ야
인싱난득 쟝부난득 출가난득 불법난봉 아니온가
텬디간의 최귀ᄒᆞ니 다문사ᄅᆞᆷ 샨니로다

〈인과문〉 서사

(나) 인간에 힝득인신 나오신 존비귀쳔
승속남녀 거ᄉᆞ사당 노소졔인 어루신네
자셰히 헤여보소 풀긋ᄐᆡ 이슬ᄀᆞᆺ튼 인싱을
쳔만년이나 살가ᄒᆞ야 셰ᄉᆞ만 탐착ᄒᆞ고
인싱난득 불법난봉은 젼혀싱각지 아니ᄒᆞᄂᆞ니
슬프다 디옥고싱 슈ᄒᆞᆯ젹의 그뉘라셔 ᄃᆡ신ᄒᆞᆯ고
권ᄒᆞ노니 제션근 심으시며 셰ᄉᆞ탐착 너무말고
념불동참 ᄒᆞ옵시소 이싱의 ᄒᆞ온공덕은
후싱에 슈ᄒᆞᄂᆞ니 디옥션악 보응과보ᄉᆞᄂᆞᆫ
다이ᄅᆞᆯ 쳬업ᄉᆞ와 대강만 ᄉᆞᆯᄉᆞ와 젼ᄒᆞᄂᆞ이다

〈인과문〉 결사

〈인과문〉의 교시적 사설은 율격적으로 파격 형태이다. 이는 산문 발원문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며, 보다 직접적인 목소리로 불법을 전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는 사설의 첫 부분으로 인간의 '생-로-병-사'를 묘사하는 본사 단락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설의 마지막 결사 부분으로 본사의 묘사 내용을 기반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다. 인과적 사설 구성 방식에서 다시 '生'의 과정으로 회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사와 본사, 결사가 각각 인과적 연결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다.

19세기 후반 이후 〈회심곡〉 계열 사설은 〈인과문〉 사설에 비해 서사와 결사 내용이 상대적으로 축약되는 양상으로 연행, 향유되었다.

(가) 천디지의 분한후에 삼나만상 니러ᄂᆞ니
셰상천지 만물중의 사람밧게 ᄯᆞ잇ᄂᆞᆫ가

〈속회심곡〉

(나)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밧게 또잇는가

〈별회심곡〉

(다) 세상텬디 만물중에 최령한것 사람이라
어이하여 최령한가 인의예지 삼강오륜
팔조목을 발키기로 ᄉᆞ람밧게 ᄯᆞ잇는가

〈무량가〉

〈인과문〉의 서사는 석가세존에 대한 찬양이 첫머리에 구성되고, "천지 만물 중 사람이 가장 귀함"을 설하는 내용이 뒤이어 구성되어 있다. (가)와 (나) 모두 〈인과문〉 서사의 첫 번째 내용은 생략되고, 두 번째 내용만 축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형태이다. (가) 형태는 〈환참곡〉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며, (나) 형태 역시 〈특별회심곡〉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의 경우 (나)와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나, 이후 '인의예지', '삼강오륜' 등 유학적으로 일반화된 관념들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는 형태이다. 물론 서술이 (가)와 (나)에 비해서는 자세하나 앞선 〈인과문〉의 서사가 축약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외 〈감사별곡〉이나 〈사체가〉의 경우는 서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형태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인과문〉 사설이 전승되며 〈회심곡〉으로 정착될 때, 서사의 교시적 내용은 축약되는 형태로 일반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사 단락은 서사 단락에 비해 양상이 복잡한 편이다. 결사 단락은 사설이 축소된 경우와, 유학 등의 일반화된 관념이 결합되어 제시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세간탐심 부디말고 시시씨씨 염불ᄒᆞ야
전생죄업 소멸ᄒᆞ고 육도순환 밧지말고
극락세계 가자구나 가자구나 가자구나
극락세계 가자구나 나무아미타불

〈사체가〉

(나) 선심하고 마음닥가 불의행사 하지마소
회심곡을 업신여겨 선심공덕 아니하면
우마형상 못면하고 구렁배암 못면하네
조심하여 수신하라 수신제가 능히하면
치국안민 하오리니 아못조록 힘을쓰오
적덕을 아니하면 신후사가 참혹하네
바라나니 우리형제 자선사업 만히하세
내생길을 잘닥가서 극락으로 나아가세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별회심곡〉

(가)의 경우는 〈인과문〉 사설과 대비하여 사설이 축소된 경우에 해당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당 단락은 '생-로-병-사'의 단계를 모두 묘사한 이후 이 사설을 향유하고 있는 중생들에게 수행과 염불을 통한 공덕 쌓기를 제안하는 부분이다. 〈인과문〉 결사 단락의 경우 앞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공덕 쌓기를 제안하는 형태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가)의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요약은 생략되었다. 이외 〈환참곡〉의 경우에는 "션심하고 마음닥거 불의힝사말고 조심하고 수신하셰"와 같이 더 축약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의 경우는 〈인과문〉 결사 단락에 비해 축약된 것은 아니지만, 사설의 내용이 변화된 형태이다. 19~20세기로 접어들며 불교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았다. 18세기의 불교가 대체로 사회의 지배 논리였던 성리학적 논리 속에서 불교의 교리 존속을 전제로 한 사회의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19~20세기의 불교는 외세의 침입과 사회의 혼란 속에서 민족의 힘을 결집시키고,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야 함

이 강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와 같이 '수신제가', '치국안민' 등과 같은 개념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우리형제 자선사업 만히하세' 등에서 근대 사회의 당면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불교 관념으로 연결시키는 시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회심곡〉, 〈선심가〉 등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결사 구성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현상이 20세기 회심곡 사설 변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과문〉 사설이 기록, 유통된 이후, 10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며 〈회심곡〉 계열 사설들은 서사, 결사 단락을 중심으로 표출되었던 교시적 내용의 직접 표출 사설이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사설을 줄이게 되었던 것은 결국 19-20세기를 거치며 불교 포교의 대상 및 구성원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시적 내용이 줄어드는 현상은 불교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점차 대중성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대중들에게 더욱 밀착된 불사 및 포교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3.2. 묘사적 사설 단락 확대를 통한 시대의식 반영

앞서 제시한 불법 교시의 사설이 축소되는 양상과는 반대로 〈회심곡〉 이본 사설들을 통해 인간의 '생-로-병-사'를 묘사한 본사 사설은 〈인과문〉 사설에 비해 확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과문〉 사설에 비해 19-20세기에 기록된 〈회심곡〉 계열 작품들은 사설의 총량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설량 증가의 주요 부분이 본사 단락인 것이다.

사실 〈회심곡〉에서 '생-로-병-사' 과정을 묘사하는 이유는 이생에서의 죄업과 공덕이 사후 세계에서의 복덕과 고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적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과문〉에서부터 해당 내용의 묘사는 '死' 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생-로-병'에 대한 묘사 사설 : 약 28구
· '사'에 대한 묘사 사설 : 약 86구[19]

이후 전승된 〈회심곡〉 계열 사설은 '생-로-병'에 대한 묘사 사설이 확대된 양상과 '死'에 대한 묘사 사설이 확대된 양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회심곡〉 계열 사설이 대부분 '死' 단계 서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사설 확대의 두 가지 양상은 각기 다른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 모두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먼저, '생-로-병'에 대한 묘사 사설이 확대된 양상을 살펴보자. 19-20세기 기록된 대부분의 〈회심곡〉 사설은 해당 묘사 사설이 확대된 형태이다. 〈선심가〉 등에서 약 44구의 사설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부터 〈환참곡〉, 〈별회심곡〉, 〈특별회심곡〉과 같이 약 58-60구의 사설이 구성되어 있기도 하며, 〈무량가〉와 같이 약 142구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설 확대의 양상은 주로 인생사의 욕구와 집착 등에 대한 허망함을 증명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가) 인간의 횡득인신 나와셔 셰간의욕만
탐착ᄒᆞ고
홋길닷기 모ᄅᆞ는다 무상은 신속ᄒᆞ고
셰월은 수이간다 인연션종 부모효양
봉ᄉᆞᄉᆞ장 충신복덕 념불동참 불공보시
ᄒᆞ온밧긔 ᄯᅩ 무ᄉᆞ일이 잇돗던고
인간애 나온사ᄅᆞᆷ 목숨을 허여보소
천년살며 만년살가 이십젼의 어려잇고
오십후면 망녕되고 인ᄉᆞ아라 사ᄂᆞᆫ거시
다믄 수십년 샌이로쇠
슬프다 이몸이 주것다가 다시올가
사ᄅᆞᆷ어더 ᄃᆡ신ᄒᆞᆯ가 갑술주고 여ᄒᆡᆯ손가
이내몸애 중병드러 곤고히 아야라

(나) 이세상에 나온사람 뉘덕으로 나왓는가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부님전 뼈를빌고
어만님전 살을빌며 칠성님전 명을빌고
제석님전 복을빌어 이내일신 탄생하니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덕 알을손가
이삼십을 당하여도 부모은공 못다갑하
어이업고 애달고나 무정세월 여류하야
원수백발 도라오니 업든망령 절로난다
망령이라 흉을보고 구석구석 웃는모양
애달고도 설은지고 절통하고 통분하다
할수업다 할수업다 홍안백발 늘거간다
인간에 이공도를 뉘가능히 막을손가
춘초는 년년록이나 왕손은 귀불귀라

19) 구절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게 제시되기 어려운 것은 〈인과문〉 사설이 형식적으로 정연하지 않은, 파격 구절들이 일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릴적의
피치못홀 져길일시 답답ᄒᆞ고 더욱설다
〈인과문〉

우리인생 늙어지면 다시점지 못하리라
인간백년 다사라도 병든날과 잠든날과
걱정근심 다제하면 단사십도 못살인생
어제오날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섬섬약질 가는몸에 태산가튼 병이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것이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쓰나 약효험이 잇을손가
판수불러 경일근들 경의덕을 입을손가
무녀불러 굿을하나 굿덕인들 잇을손가
재미쌀을 쓸코쓸어 명산대천 차자가서
상탕에 메를짓고 중탕에 목욕하고
하탕에 수족씻고 촉대한쌍 버려노코
향로향합 불가추고 소지한장 든연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날님전 비나이다
〈별회심곡〉

(가) 사설에서는 중생에게 세간애욕을 탐착하지 말고, 불공보시에 힘쓸 것을 당위적 명제로 제시한 다음 늙고, 병이 들어 죽는 과정이 필연적인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나) 사설에서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생에 대한 집착의 허망함을 묘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즉, (가) 사설은 불교의 논리를 중심에 두고, 인간의 '생-로-병-사'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면, (나) 사설은 '생-로-병-사'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인간의 감정에 집중하여, 이를 불교 논리로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9-20세기에 기록된 사설들은 보다 대중의 시선과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몽환가〉나 〈백발가〉 등과 같은 다른 계열의 사설이 삽입되는 형태 역시 위의 양상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20] 특히 이본들 중 〈무량가〉의 경우에

20) 특히 〈무량가〉 사설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생-로-병'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며, 백발이 찾아옴에 따른 인생의 무상함을 묘사하는 사설이, 또 '~몽중일세', '~꿈속일세'와 같은 구절이 반복되어 나오는 사설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이다. 아울

이러한 다른 계열 삽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생-로-병'에 해당하는 사설 단락에 〈백발가〉, 〈몽환가〉 등의 사설과 유사한 형태의 사설이 삽입되어 있다. 대략 19세기경부터 유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다른 불교가사 사설들 중, 인간의 탐욕이나 생에 대한 집착에 대한 덧없음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이 〈회심곡〉 해당 사설 단락의 의미를 보충하고, 강조하여 주는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죽음에서부터 사후체험 과정에서의 공덕, 죄악 판결, 형벌에 이르기까지의 '死' 단계에서의 사설 확대는 선행 연구에서 몇 차례 언급되었다.[21] 이 부분은 〈인과문〉 사설에서 평면적인 형태로 묘사되고 있는 것에 비해, 후대의 여러 이본 사설에서는 '극'에 가까울 만큼 생생하고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문〉에 비해 사설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회심곡〉 사설 단락의 중심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가)피치못할 져길히 시왕께 잡혀드러
츄열다짐 시비장단 가지가지 무ᄅᆞ실제
인간에 디은죄는 염나대왕 업경ᄃᆡ예
낫낫치 비최엿고 데석궁 나망중에
낫낫치 어ᄅᆞ여시니 어듸가 ᄒᆞᆫ말이나
거즛다짐 ᄒᆞ올손고 내닙으로 ᄉᆞ론후에
그뉘라셔 구제ᄒᆞᆯ고

〈인과문〉

(나)나찰들이 전후좌우 라열하고 기치창금
버렷난데 형벌기구 차려놋고 대상호령
기다리니 엄숙하게 칙량업다 남녀죄인
잡아드려 형벌하여 뭇는말이 인세간
내보낼제 선심공덕 하랴드니 무삼션심
하엿는고 자사이 아뢰여라 인간세상
하든일이 호리불차 다잇시니 거짓말
조금도말고 일일이 아뢰여라 만일네가
거짓말을 하다가는 증거가 충분하고
죄에죄를 가하리라 천만가지 무를적에
어이그리 자상할가 인군에게 충성잇서
만백성을 살리얼냐 부모님게 효도하여

러 '정토삼부경'의 영향을 받은 듯한 극락세계의 장엄한 모습을 묘사한 사설까지 함께 구성되어 있다.

21) 최형우, 「불교가사의 연행과 사설 구성 방식 연구」(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6). 최형우, 「조선후기 불교가사 향유 과정에서 기록의 의도와 사설 변이의 양면성」, 『어문연구』 196(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

백천가지 착햇으며 배곱푼이 밥을주어
아사구제 하엿시며 헐벗신이 옷을주어
한냉구제 하엿시며 집푼물에 다리노아
월천공덕 하엿시며 목마른이 물을주어
급수공덕 지엇으며 병든사람 약을주어
활인공덕 하엿시며 높은산에 불당지어
중생공덕 하엿시며 부처님게 공양드려
마음닥고 선심하야 념불공덕 하엿시며
무신공덕 하엿는지 지은데로 아뢰여라
〈무량가〉

위 (가)와 (나)의 사설을 비교하여보면, 죽음 이후 염라대왕 전에서 죄악에 대한 판결을 받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 크게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나) 사설에서 죄악에 대한 판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데, 여기에서 활용되는 기준은 '임금에 대한 충성, 효도, 중생에 대한 구제(일상 차원), 염불 공덕' 등 불교적 색채가 강한 것에서부터 시대적 요구에 대한 부분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후 세계에서 받게 될 죄악에 대한 판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대의 불교가 대중들에게 요구하였던 사회적 역할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이 가사 사설의 역할이 단순히 불법을 전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가 요구한 의식들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여 판결, 판결 이후의 과정을 서술하는 형태로 사설이 구성되기도 하였다.22)

여자죄인 잡아들여 엄형국문 하난말이
너에죄목 들어바라 시부모와 친부모께

22) 최형우, 「조선후기 불교가사의 여성 형상화와 향유문화적 의미」, 『한민족어문학』 87(한민족어문학회, 2020).

지성효도 하엿느냐 동생항열 우애하며
친척화목 하엿느냐 괴악하고 간특한년
부모말삼 거역하고 동생간에 이간하고
형제불목 하게하며 세상간악 다부리며
열두시로 마음변화 못듯는대 욕을하고
마조안저 우슴낙담 군말하고 성내는년
남의말을 일삼는년 시긔하긔 조와한년
풍도옥에 가두리라 (중략)
대연을 배설하고 착한여자 불러들여
공경하며 하는말이 소원대로 다일너라
선녀되여 가랴느냐 요지연에 가랴느냐
남자되여 가랴느냐 재상부인 되랴느냐
제실황후 되랴느냐 제후왕비 되랴느냐
부귀공명 하랴느냐 네 원대로 하여주마
소회대로 다일러라 선녀불러 분부하야
극락으로 가게하니 그아니 조흘손가

〈별회심곡〉

〈별회심곡〉 외에도 〈속회심곡〉, 〈선심가〉, 〈환참곡〉, 〈특별회심곡〉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사설이 구성되어 있다. 〈인과문〉에서는 남녀 구분없이 제시된 판결 및 죄악에 따른 형벌의 문제가 후대에 이르러서는 남녀의 차이에 따라, 판결의 내용에 따라 각기 구분되어 사설 단락으로 만들어지고, 순차적으로 배치된 것이다. 특히, 근대 이전 여러 불서나 문학 작품들 가운데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23] 하지만, 19-20세기 정착된 〈회심곡〉 계열 사설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판결 및 형벌에 대한 사설을 대등하게 구성하고 있다. 이는 근대로 접어들며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변화하고, 불교

23) 조선시대 전개된 불교는 인도, 중국을 거쳐 유입된 형태였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에서 형성, 전개된 불교의 기본 성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유입, 전개된 불교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로 나타났으며, 조선 후기까지 이러한 인식이 주를 이루는 형태였다.
이상 최형우, 앞의 논문, 126~133면 참조.

사찰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24]

사실 조선시대 불교에서 여성 승려인 비구니 집단은 사찰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고,[25] 이를 통해 불교 사찰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제한적이지만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불교의 사찰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은 조선 후기까지 기록의 전면에 나오기 힘들었다. 따라서 〈회심곡〉의 후대 이본에 '여성에 대한 판결과 보상, 처벌'에 해당하는 사설 내용이 남성에 대한 사설과 대등하게 구조화된 형태는 상당히 중요한 변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회심곡〉 사설이 전승, 향유되며 사후 과정에 대한 사설이 확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당대 사회가 불교에 요구하였던 사회적 역할과, 당대의 시대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묘사적 사설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연행의 현장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당대의 불교는 본래의 종교적 역할 외에 불안한 사회 정세에서 민족 종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으며, 묘사적 사설을 통해 이러한 시대 인식을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24) 김동국(2004)은 〈회심곡〉의 필사를 주도적으로 남겼던 필사자 및 향유자로 부녀자층을 들었다. 물론 부녀자층의 가사 필사가 해당 시기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나, 〈회심곡〉의 필사를 부녀자층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회심곡〉의 향유 과정에 여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확실하다.

25) 조선시대 여성 승려인 비구니승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 조선후기 비구니들은 불사에 화주나 시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비구들의 감역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불교 사찰이 남성만의 공간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상 탁효정(2022), 「조선후기 경기 서북부 일대 비구니 사찰과 비구니의 활동」, 『한국불교학』 103, (한국불교학회, 2022), 160~161면 참조.

4. 〈회심곡〉 사설 향유의 사회문화적 의미

〈회심곡〉 사설이 향유되던 시기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으며, 전근대적 사고와 근대적 사고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곡〉 전승에 핵심 요소 중 하나였던 종교 '불교'의 경우에도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다. 〈회심곡〉의 유행 및 전승 과정에서의 사설 변이를 단순한 대중의 기호 반영이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결론지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 사설은 이미 18세기 기록물의 형태로 유통된 이후 10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며 큰 폭의 사설 변이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이 사설의 전승자가 가졌던 시대적 의식들이 다양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회심곡〉 사설 변이에 담긴 당시 전승자들의 의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불교가사의 유행과 향유 논의에서 자주 다루어진 '대중성의 확보'와 관련된 부분이다. 사실 불교가사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불법을 우리말로 풀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대중 포교와 연관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회심곡〉 사설과 같이 형성된 가사 사설이 다시 큰 폭으로 변화 과정을 거치는 현상을 해명하기는 어렵다. 즉, 불교가사가 가진 대중 포교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회심곡〉 사설 역시 담아내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심곡〉이 전승, 향유되었던 시기는 전대 경기체가 등의 국문시가 작품이 향유되던 시기[26]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회심곡〉이 전승, 향유되던 18~20세기는 외세의 침략과 더불어 외래 종교인 천주교의 교세 확장과 여러

26) 불교계 경기체가가 향유되었던 시기는 당대 지배 논리로 부각되었던 성리학과 불교가 대립적 위치에 있었으며, 불교는 당대 유행했던 시가 양식인 경기체가를 활용하여 불교 교리를 담아내었다. 이 시기는 불교의 지위 변화가 특징적이기는 하지만, 대립의 양상이 후대에 비해 단순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신종교가 새롭게 만들어져 각각의 세를 넓혀가던 시기이다. 특히 천주교와 동학, 남학, 원불교와 같은 여러 한반도의 신흥 종교들은 각기 당시의 시대적 사명을 내세우며 대중 포교를 이어나갔고, 당시 널리 유행하고 있던 '가사 갈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27) 이를 통해 불교 사찰의 세가 이전 시기와는 다른 의미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불교가사를 창작, 혹은 연행하는 전승자 역시 전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방식만으로는 당대 불교가 처한 종교적 현실에 대응해 나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설법 형태의 교시적 사설이 축소되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설명하는 묘사적 사설이 확대되는 양상은 이러한 당대의 사회적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19-20세기에 접어들며 불교는 그들의 세를 유지하며 종교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회심곡〉 사설 내에서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회심곡〉 계열 사설에 나타난 '호격 표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사의 사설을 그것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가 존재하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는 청자가 존재한다. 물론, 실제 청자는 연행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 청자를 실제로 특정지을 수는 없지만, 가사 사설의 주요 전환점에 제시되고 있는 호격 표지를 통해 가사 사설의 연행자들이 생각한 향유층의 변화를 일부 읽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격 표지'의 변화를 통해서도 사설 향유 과정에서의 의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인과문〉에서의 지칭 청자는 '어르신네'로 표현되어 있다. 『염불보권문』에 〈인과문〉 바로 앞에 위치한 〈나옹화상서왕가〉와 동일한 형태이며, 하나의 발

27) 1860년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한 이후, 용담유사와 같은 가사 작품들을 통해 교리 설파를 한 사례를 통해 당대 신종교가 가사 갈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원불교 역시 이공주, 박중빈 등이 가사 작품을 창작하였으며, 남학의 경우에도 20수 가량의 가사 작품을 포교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래 종교인 천주교 역시 이벽의 〈천주공경가〉, 정약전의 〈십계명가〉 등 가사를 창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원문 내 삽입가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불작법차서」 내 발원문에서의 청자에 대한 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호격 표지가 이후 〈회심곡〉 계열 사설 이본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 사바세계 중싱덜아 이ᄂᆡ말삼 더러보소(선심가, 『불교가사(필사본)』(1887))
(나) 이보시요 시쥬님ᄂᆡ 이ᄂᆡ말ᄉᆞᆷ 드러보소(속회심곡, 『가집』(1934))
(다) 여보시요 도님ᄂᆡ 이ᄂᆡ말삼 잠간드러보시오(환참곡, 『역대가사문학전집』(2423번))

(가)의 '사바세계 중싱덜아'와 같이 불교의 교리에 가장 부합하는 표현에서부터 (나)의 '시쥬님ᄂᆡ', (다)의 '도님ᄂᆡ'와 같이 각기 다른 호격 표지들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 ~ (다)의 호칭은 모두 불교적 색채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넓은 범위의 대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즉 이러한 호격 표지의 활용은 다양한 종교가 난립하여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심곡〉을 전승, 향유하는 집단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회심곡〉 사설이 향유되었던 시기는 중세적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근대적 질서 체계가 새롭게 잡혀가던 시기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여러 신종교들은 민족 종교를 표방하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오랜 시간 전승되어 오던 종교 중 하나인 불교 역시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갔다.[28]

---

28) 근대 불교의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경허, 담해, 성월, 용성, 만해 등 다양한 근대 승려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근대전환기 각 사찰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불교의 변화와 노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 범어사의 경우 1908년 근대식 교육기관인 사립명정학교의 설립, 1916년 범어사 지방학림의 설립과 이를 통한 근대적 계몽 교육 활동 등을 통해 근대 불교

(가) 오회라 이노래를 자세자세 들어보소
부처님이 말슴하시기를 부모에게 효성하고
스님네게 공경하고 대중에 화합하고
빌어먹는 사람을 불상히녁여 조금식이라도주고
부처님께 지성으로 위하고 가난한 사람은
꽃 한 가지라도 꺾어다 놓고 절하던지
돈한푼을 놓고 절을하던지 밥 한사발을 놓고
위하여도 복을 한없이 받는다하시고
이우의 다섯가지를 지성으로 하여가면
복이한없다 하시니라
중생은 갬이와 이같은것도 죽이지말고
남에게 욕하고 언잖은 소리말고
머리터럭 만한것도 남의것 훔치지말고
경허, 〈법문곡〉

(나) 주색계에 부랑자는 날보와서 회심하소
의식으로 구속된자 날보아서 심득하소
구식으로 구든사람 날보와서 혁신하소
신식으로 밝은사람 날보와서 사괴마소
종교심이 업는사람 날보와서 발신하소
장부심이 업는사람 날보와서 용단하소
사회심이 업는사람 날보와서 단결하소
공덕심이 업는사람 날보와서 양성하소
노예심이 만흔사람 날보와서 독립하소
자비심이 업는사람 날보와서 향상하소
무상인지 진상인지 생로병사 그뿐이다
과거런가 미래런가 다못현재 일념이다
학명, 〈원적가〉

위의 (가)와 (나)는 근대 불교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경허(1849-1912)와 학명(1867-1929)의 가사 사설이다. 해당 사설에서는 민족 선각자로서의 화자에 의해 대중들에게 시대적 인식과 사회적 역할을 전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가)의 내용을 통해 대중과의 화합,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등의 사회의 일반적인 관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나)를 통해 혁신, 단결, 독립 등 근대 사회 우리 민족이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를 읽어낼 수 있다. 즉, 19세기를 거쳐 20세기에 이르러 불교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사회적 관념을 가사 작품에 풀어내는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당시 가장 널리 유행하였던 〈회심곡〉 계열 사설에도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근대적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사찰의 사회적 활동 양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최형우, 「20세기 초 범어사의 사회적 활동과 『권왕문』 향유의 문화적 의미」, 『어문론총』 82(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117~118면 참조.

〈회심곡〉 사설의 변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사 단락 사설의 변화나 죄악에 대한 판결 과정에서 '여자'에 대한 대목을 분리하여 동등한 위치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모두 이러한 당대 불교에 요구되었던 사회적 역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대 사회는 불교에 그들의 전통적인 교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개념 아래 대중의 역량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선각자의 역할을 기대하였으며, 이는 결사 단락에서의 사설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아울러 당시 변화된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 역할[29]은 근대 불교의 전개 및 사회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점 역시 여성에 대한 독립적인 사설 단락의 구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회심곡〉 사설이 19-20세기를 거치며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단순히 대중들의 기호나 흥미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불교를 둘러싼 내외부의 환경이 변화하고,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의 역할이 변화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가사 사설로 반영된 형태이다. 많은 불교가사 작품들 가운데 이러한 불교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회심곡〉이라고 할 수 있으며, 〈회심곡〉 사설의 변모 양상은 19-20세기 불교의 변화를 읽어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29) 근대전환기 여성의 지위 변화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담론은 이 시기 불교잡지를 통해서도 다양하게확인할 수 있다. 김광호가 제시한 「불교와 여성의 신앙」(『불교』 67, 1930)을 통해 여성이 불법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가정, 사회, 국가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만 보더라도 근대 이전의 여성과는 확연히 달라진 지위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박상란, 「근대전환기 불교잡지의 여성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228~230면 참조.

5. 결론

이상을 통해 본고에서는 〈회심곡〉 계열 사설의 변모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였다. 〈회심곡〉 계열 사설은 18세기 〈인과문〉이 기록되어 유통, 향유된 이후 19-20세기에 걸쳐 상당히 큰 폭의 사설 변화가 일어났으며, 상당히 큰 사설 구성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현재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심곡〉 사설이 대부분 20세기 초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19-20세기에 걸친 변화의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적어도 100여 년의 기간 동안 전승 및 향유자들의 중요한 의식들을 반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회심곡〉 계열 사설의 변모에는 종교로서의 불교가 외래 종교의 유입 및 신종교의 출현 과정에서 세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중 포교 방법의 변화 관련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시대 및 사회가 요구하였던 민족 종교로서의 역할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해 가사 향유 차원에서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여러 불교가사 사설들에서는 확인하기 힘든 〈회심곡〉 계열 사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특징들은 〈회심곡〉이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끊임없이 전승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작품이 시대를 뛰어넘어 유행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감정이나 생각을 담아내거나, 시대에 따라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개방성을 갖추어야 한다. 〈회심곡〉의 경우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로병사' 문제를 다루면서도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였던 불교의 변화와 의지를 유연하게 담아내었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회심곡〉 사설의 변모 양상은 이 작품이 단순하게 불법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교가사 사설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불교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강진옥, 「제주도 무가 〈헤심곡〉 연구」, 『구비문학연구』 38, 한국구비문학회, 2014, 89~138면.

_____, 「동해안 무가 〈신무염불〉의 〈회심곡〉 수용과 변용 연구」, 『비교민속학』 57, 교민속학회, 2015, 229~265면.

김동국, 「회심곡 발생고」, 『우리어문연구』 21, 리어문학회, 2003, 205~230면.

_____, 「회심곡 변이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 16, 우리문학회, 2003, 169~205면.

_____, 「회심곡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김빛여울, 「불가조.소릿조 〈회심곡〉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김종진, 「불교가사 유통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0.

_____, 「〈회심곡〉 감상의 한 측면 : 탱화와 관련하여」, 『한국시가연구』 12, 한국시가학회, 2002, 283~308면.

_____, 『불교가사의 계보학, 그 문화사적 탐색』, 소명출판, 2009.

명연 저, 정우영·김종진 옮김, 『염불보권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박정경, 「회심곡과 서울굿 바리공주의 음악적 비교」, 『한국민요학』 32, 한국민요학회, 2011, 55~85면.

박상란, 「근대전환기 불교잡지의 여성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205~236면.

성기련, 「화청 회심곡과 염불 회심곡」, 『한국음반학』 9, 한국고음반학회, 1999, 243~271면.

손인애, 「20세기 전반기 〈회심곡〉의 전승 양상」, 『한국민요학』 37. 한국민요학회, 2013, 121~165면.

이옥영, 「회심곡 연구」, 아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임기중, 『불교가사 원전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0.

전재강, 「〈회심곡〉류 불교가사의 단락 전개·구성과 선악·생사관」, 『어문학』 115, 한국어문학회, 2012, 135~163면.

조영림, 「회심곡 비교 연구 : 하룡남·이춘희 창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최형우, 「불교가사의 연행과 사설 구성 방식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6.
_____, 「불교가사 〈인과문〉의 사설 구성 방식과 연행문화적 의미」, 『어문학』 144, 한국어문학회, 2019, 161~186면.
_____, 「20세기 초 범어사의 사회적 활동과 『권왕문』 향유의 문화적 의미」, 『어문론총』 82,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111~137면.
_____, 「조선후기 불교가사의 여성 형상화와 향유문화적 의미」, 『한민족어문학』 87, 한민족어문학회, 2020, 121~152면.
_____, 「조선후기 불교가사 향유 과정에서 기록의 의도와 사설 변이의 양면성」, 『어문연구』 19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2, 147~169면.
탁효정, 「조선후기 경기 서북부 일대 비구니 사찰과 비구니의 활동」, 『한국불교학』 103, 한국불교학회, 2022, 133~165면.

논문 투고일 : 2024.07.20 심사 완료일 : 2024.08.09 게재 확정일 : 2024.08.19

Abstract

A Study on Enjoying the <Hoisim-gok(回心曲)> and Changing Patterns in Lyrics

Choi, Hyung-woo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lyrics structure of the Buddhist gasa(歌辭) 〈Hoishim-gok〉 during its transmission and the socio-cultural significance of these changes. 〈Hoishim-gok〉 is one of the most enduring and widely popular Buddhist gasa(歌辭), and it continues to be performed in some circles today. Although much has been discussed about 〈Hoishim-gok〉, there has been little focus on the transformation of its lyrics structure within the corpus of 〈Hoishim-gok〉 work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variations in the narratives of 〈Hoishim-gok〉 over time.

To this end, the study uses the 〈Ingwa-mun〉, recorded in the 18th century, as a benchmark for 〈Hoishim-gok〉 lyrics transmission, comparing it with 〈Hoishim-gok〉 lyrics recorded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The study particularly examines the lyrics from the early 20th century, given that many manuscripts of 〈Hoishim-gok〉 are undated and most dateable lyrics are from this period.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lyrics evolution of 〈Hoishim-gok〉 primarily involves the reduction of didactic elements related to the propagation of Buddhist teachings, which had been used since earlier times, and an expansion of the descriptions of the 'birth-aging-illness-death' process, which is central to 〈Hoishim-gok〉.

These changes in the lyrics are not merely a reflection of popular preferences but are indicative of the efforts of Buddhism to adapt to the socio-cultural demands 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time. During this period, Buddhism faced the challenge of securing its popularity amidst the influx of foreign religions and the emergence of new religious movements. Its role as a national religion connected to societal changes was crucial. The transformation in the narratives of 〈Hoishim-gok〉 serves as a significant indicator of the broader changes in Buddhism during the 19th and 20th centuries.

Keywords

Hoishim-gok, Ingwa-mun, Buddhist Gasa(歌辭), Lyric's Changing Patterns, propagation